

마세강과 산주가마 계곡

마세강의 원류는 시라카미 산지의 핵심 지역에서 합류해 핫포초 바로 북쪽에 있는 산에서 일본의 서쪽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강은 산에서 내려와 흘러가면서 강바닥을 침식시키고 커다란 암석 곳곳이 곱어진 험준한 계곡을 형성했습니다.

산주가마라는 계곡의 이름은 강에 관련한 이 근방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역사의 대부분을 임업이 차지하는 마을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일본이 근대화되기 전, 벌목된 통나무를 강에 띄워 하류를 거쳐 바다로 수송했습니다. 나무꾼들은 근처의 하치모리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어 그 통나무를 작게 나눈 다음 쌓아서 다발로 묶었습니다. 각 조각은 1m 정도의 길이로 일본어로 ‘술’을 뜻하는 가마라 불리는 덩어리로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꾼들은 통나무를 강으로 던져 넣고, 이 통나무들이 더 하류 쪽에서 모이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하류에 있던 노동자들은 목재의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상류로 찾으러 갔더니 30 ‘가마’에 해당하는 양의 목재가 강가의 커다란 바위에 막혀 있거나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잃어버린 목재의 수를 붙여 이 계곡을 일본어로 ‘30 개의 가마’를 뜻하는 ‘산주가마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